

2020년 8월 27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대형 기술주 등 모멘텀 주식만 상승 나스닥 +1.73% Vs. 러셀 2000 -0.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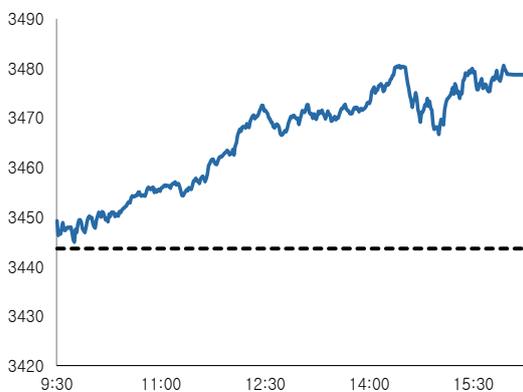
미 증시 특징: 대형기술주 위주로만 상승

미 증시는 대부분의 종목군이 약세를 보였으나 세일즈포스의 급등에 기대 대형 기술주가 상승하며 지수를 견인. 이러한 기술주들이 대거 포함된 모멘텀 주식들이 급등 하는 등 쓸림 현상은 컸음. 다만, 차익욕구가 높아지며 장 후반 상승분을 축소 하는 등 변동성 확대는 지속. 한편, 연준위원들이 평균인플레 정책을 시사하자 파월 연준의장 발언에 대한 기대를 높인 점도 긍정적(다우 +0.30%, 나스닥 +1.73%, S&P500 +1.02%, 러셀 2000 -0.70%)

미 증시는 대부분의 종목군이 약세를 보였으나 세일즈포스(+26.04%)의 견고한 실적과 쓸림 현상이 유입되며 상승. 특히 종목의 펀더멘탈등을 외면하고 주가의 추세를 따라 매매하는 모멘텀 투자에 포함된 기업들이 급등한 점이 특징. 이러한 모멘텀 투자에 포함된 기업들은 아마존 등 대형기술주와 테슬라 등 테마성 종목군이 해당. 실제 모멘텀 ETF 인 MTUM(+1.86%)은 지난 3 월 저점 대비 70%가까이 급등해 S&P500 을 아웃퍼폼. 시장은 모멘텀 투자가 지속됨으로 과매수 상태를 유지 할 수 있다는 평가가 많음. 실제 버블 이슈가 불거졌던 일부 모멘텀 주식들 또한 오늘도 매수세가 유입되며 강세 유지. 다만 고평가 논란속 최근 장중 변동성 확대가 이어지고 있어 지속 여부는 주목

한편, 매파 성향의 에스더 조지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가 “물가 2%가 천정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주장해 ‘평균 인플레이션’ 정책 도입 기대를 높임. 그렇지만 “금융시장이 안정적이며, 신용도 여력이 있어 연준의 추가 부양책은 시기상조” 라고 언급. 또 다른 매파 성향의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은 총재도 “경기 회복이 진행 되고 있으나 회복 속도는 둔화되고 있어 추가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 라고 주장. 시장은 다음날 잭슨홀 컨퍼런스에서 파월 연준의장이 새로운 통화정책 관련 내용을 발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이런 가운데 매파 성향의 연준위원들이 ‘시장이 기대하는 ‘평균 인플레 도입’을 시사하는 내용을 언급한 점도 지수 견인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 | 지수동락률(%) | Close | D-1 | 지수동락률(%) | Close | D-1 |
|---------|----------|-----------|-------|----------|-----------|-------|
| KOSPI | | 2,369.32 | +0.11 | 홍콩항셱 | 25,491.79 | +0.02 |
| KOSDAQ | | 841.35 | +0.60 | 영국 | 6,045.60 | +0.14 |
| DOW | | 28,331.92 | +0.30 | 독일 | 13,190.15 | +0.98 |
| NASDAQ | | 11,665.06 | +1.73 | 프랑스 | 5,048.43 | +0.80 |
| S&P 500 | | 3,478.73 | +1.02 | 스페인 | 7,123.00 | +0.21 |
| 상하이종합 | | 3,329.74 | -1.30 | 그리스 | 635.84 | +1.03 |
| 일본 | | 23,290.86 | -0.03 | 이탈리아 | 20,137.29 | +0.54 |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모멘텀 주식들 급등

세일즈포스(+26.04%)는 견고한 실적과 가이드스 상향 조정, 다우30 편입 등에 힘입어 급등 했다. 어도비(+9.10%), 서비스나우(+6.50%), 워크데이(+10.10%) 등 소프트웨어 회사들도 동반 상승했다. 스트리밍 회사인 로쿠(+11.17%)는 활성 계정 증가 및 계정당 가치 증대 효과로 이유로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상향 조정 소식이 전해지자 상승했다. 넷플릭스(+11.61%)도 동반 급등 했으며 아마존(+2.85%), 디즈니(+1.84%)도 상승했다. 특히 아마존의 경우는 MS(+2.16%)와 더불어 클라우드 서비스 경쟁이 확대되고 있는데 세일즈포스의 견고한 실적과 휴렛팩커드 엔터프라이즈(+3.64%)가 클라우드 컴퓨팅 매출 급증에 기대 강세를 보이자 상승세를 이어갔다.

페이스북(+8.22%)은 전자상거래 관련 집중 투자 소식으로 급등했다. 전기차 업체인 니오(+14.57%)는 전일 UBS에 이어 오늘은 모건스탠리가 투자의견을 상향 조정한 데 힘입어 급등 했다. 이로 인해 테슬라(+6.42%)도 동반 상승했다. 전반적으로 모멘텀 주식 ETF인 MTUM(+1.86%)으로 자금 쏠림 현상이 유입되며 강세를 보이는 등 수급적인 영향이 컸다. 그러나 이를 제외한 JP모건(-1.40%) 등 금융주와 엑손모빌(-2.13%) 등 에너지 등 대부분의 종목군은 부진했다.

주요 ETF

| ETF 종류 | 등락률 | ETF 종류 | 등락률 |
|--------------------|--------|----------------------|--------|
| 원유시추업체 ETF(XOP) | -3.21% | 대형 가치주 ETF(IVE) | -0.25% |
| 에너지섹터 ETF(OIH) | -3.24% | 중형 가치주 ETF(IWS) | -0.58% |
| 소매업체 ETF(XRT) | +0.44% | 소형 가치주 ETF(IWN) | -1.14% |
| 금융섹터 ETF(XLF) | -0.48% | 대형 성장주 ETF(VUG) | +2.06% |
| 기술섹터 ETF(XLK) | +2.04% | 중형 성장주 ETF(IWP) | +1.17% |
|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 +1.91% | 소형 성장주 ETF(IWO) | -0.23% |
| 인터넷업체 ETF(FDN) | +4.26% | 배당주 ETF(DVY) | -0.83% |
| 리츠업체 ETF(XLRE) | -0.69% | 신흥국 고배당 ETF(DEM) | -0.64% |
| 주택건설업체 ETF(XHB) | +0.06% |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 -0.02% |
| 바이오섹터 ETF(IBB) | -0.17% | 미국 국채 ETF(IEF) | -0.04% |
| 헬스케어 ETF(XLV) | -0.12% | 하이일드 ETF(JNK) | -0.02% |
| 곡물 ETF(DBA) | -0.48% | 물가연동채 ETF(TIP) | +0.19% |
| 반도체 ETF(SMH) | +0.56% | Long/short ETF(BTAL) | +1.01% |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 S&P 500 | Close | D-1 | D-5 | D-20 |
|---------|----------|--------|--------|---------|
| 에너지 | 266.85 | -2.23% | -3.68% | -6.60% |
| 소재 | 398.23 | +0.97% | +1.40% | +2.92% |
| 산업재 | 655.85 | +0.05% | +1.56% | +6.77% |
| 경기소비재 | 1,254.67 | +1.46% | +3.80% | +11.01% |
| 필수소비재 | 663.41 | +0.10% | +0.83% | +3.20% |
| 헬스케어 | 1,243.59 | -0.12% | -0.16% | -0.11% |
| 금융 | 411.67 | -0.48% | +0.92% | +1.28% |
| IT | 2,143.23 | +2.05% | +6.24% | +13.70% |
| 커뮤니케이션 | 211.97 | +3.71% | +6.87% | +11.79% |
| 유틸리티 | 296.83 | -1.20% | -1.95% | -3.80% |
| 부동산 | 221.82 | -0.74% | +1.13% | -2.31% |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쏟림 현상 지속

MSCI 한국 지수 ETF 는 0.62% MSCI 신흥국 지수 ETF 는 0.27% 상승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84.96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2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일 한국 증시는 시장의 3 단계 거리두기 관련 뉴스에 따라 변동성이 컸다. 특히 코로나 재 확산에 대한 우려 속 이러한 3 단계 거리두기가 단행 될 경우 투자심리 악화는 불가피 하기 때문에 변화가 큰 것으로 추정한다. 3 단계로 갈 경우 필수적인 사회 경제 활동 이외 모든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공공기관은 필수 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에 들어가게 되며 민간 기업은 이 방침에 대해 권고 된다. 결국 사회 활동 자체가 중단된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선택일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시장은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 발표 및 3 단계 거리두기 관련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미 증시는 일부 모멘텀 주식들만 강세를 보이며 여타 종목군은 부진한 차별화가 극심한 모습이다. 이는 한국 증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 최근 상승세를 보여왔던 종목들에 대한 싹림 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편, 미-중 마찰이 하루 하루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번에는 중국의 비행금지 구역에 미국 정찰기가 진입한 데 반발해 중국은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했고, 미국은 남중국해 관련 중국 기업과 개인들을 제재한다고 발표했다. 이 영향으로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등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진 점은 부담이다. 이러한 요인을 감안 한국 증시는 일부 싹림 현상이 큰 종목 이외에는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북미 지역 기관들 안전자산 선호심리 지속

7월 미국 내구재주문은 전월 대비 11.2% 증가해 예상(mom +4.2%)를 큰 폭으로 상회했다. 운송을 제외한 수치도 전월 대비 2.4% 증가해 예상(mom +2.0%)을 상회했다.

미국 모기지신청건수는 지난주 대비 6.5% 감소 했으며 재 신청지수는 지난주 대비 10.0% 급감했다. 30년 모기지 금리는 지난주 3.23%에 비해 소폭 하락한 3.22%를 기록했다.

8월 미국 스테이트 스트리트 지수는 전월(84.6) 보다 소폭 상승한 86.1로 발표됐다. 여전히 기준선인 100을 하회하고 있어 기관들의 포트폴리오에는 안전자산이 더 많음을 보여준다. 지역별로 보면 북미지역은 77.6p로 1p 상승했고 아시아는 89.9p로 3.3p, 유럽은 122.6p로 4.8p 상승했다. 대체로 북미지역 기관들의 포트폴리오에는 미 증시 급등 불구 안전자산이 많은 모습이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FICC, 파월 의장 발언을 기다리며 관망세

국제유가는 EIA 가 지난 주 원유 재고에 대해 469 만 배럴 감소했다고 발표하자 공급 감소 기대 속 상승했다. 더불어 허리케인 로라가 카테고리 4 단계로 업그레이드되며 시추시설과 더불어 정유시설 폐쇄까지 이어지자 변동성이 커졌다. 이런 가운데 미-중 군사 마찰 우려가 부각되자 상승분을 반납하며 강보합으로 마감했다.

달러화는 파월 연준의장의 연설을 기다리며 여타 환율에 대해 보합권 등락을 보였다. 엔화는 미-중 군사 마찰 우려가 부각되자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부각되며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유로화와 파운드화는 변화가 제한된 가운데 혼조 양상을 보였다. 역외 위안화는 0.3%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으나 브라질 헤알화는 1.8% 약세를 보이는 등 신흥국 환율도 차별화를 보였다.

미 국채금리는 내구재 주문 개선과 나스닥 급등에 기반해 상승했다. 다만,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을 기다리며 관망세가 짙은 양상을 보였다. 한편, 5 년물 국채입찰에서 응찰률이 12 개월 평균(2.45 배)를 상회한 2.71 배, 간접입찰도 12 개월 평균(60.3%)를 상회한 66.2%를 기록하는 등 국채 수요가 증가한 점도 상승폭 축소 요인 중 하나였다.

금은 경기 우려 및 미-중 군사 마찰 가능성이 높아지자 상승했다. 한편,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에 대한 기대 또한 영향을 줬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미-중 마찰 우려로 하락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98% 철근은 0.215 상승했다.

| 주요 상품 | 증가 | D-1(%) | D-5(%) | 주요 통화 | 증가 | D-1(%) | D-5(%) |
|-------|----------|--------|--------|---------------|---------|--------|--------|
| WTI | 43.39 | +0.09 | +0.65 | Dollar Index | 92.924 | -0.10 | +0.04 |
| 브렌트유 | 45.64 | -0.48 | +0.60 | EUR/USD | 1.1832 | -0.03 | -0.05 |
| 금 | 1,952.50 | +1.53 | -0.90 | USD/JPY | 105.97 | -0.39 | -0.14 |
| 은 | 27.604 | +4.46 | +0.43 | GBP/USD | 1.3212 | +0.46 | +0.87 |
| 알루미늄 | 1,780.00 | +0.25 | -0.75 | USD/CHF | 0.9083 | +0.07 | -0.75 |
| 전기동 | 6,594.00 | +1.00 | -1.36 | AUD/USD | 0.7237 | +0.58 | +0.77 |
| 아연 | 2,467.00 | -0.60 | -1.52 | USD/CAD | 1.3149 | -0.18 | -0.51 |
| 옥수수 | 354.25 | -0.07 | +4.27 | USD/BRL | 5.6102 | +1.83 | +0.96 |
| 밀 | 539.75 | +0.79 | +3.40 | USD/CNH | 6.881 | -0.34 | -0.59 |
| 대두 | 924.25 | +0.43 | +1.12 | USD/KRW | 1186.80 | +0.14 | +0.47 |
| 커피 | 122.10 | -0.69 | +2.30 | USD/KRW NDF1M | 1184.96 | -0.20 | +0.23 |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10 년물 금리 | 증가(%) | D-1(bp) | D-5(bp) | 10 년물 금리 | 증가(%) | D-1(bp) | D-5(bp) |
|----------|--------|---------|---------|----------|-------|---------|---------|
| 미국 | 0.688 | +0.49 | +0.83 | 스페인 | 0.295 | +0.70 | -5.90 |
| 한국 | 1.405 | +1.80 | +5.30 | 포르투갈 | 0.325 | +0.30 | -4.30 |
| 일본 | 0.046 | +1.10 | +1.40 | 그리스 | 1.087 | +0.10 | -3.80 |
| 독일 | -0.415 | +1.60 | +5.70 | 이탈리아 | 0.943 | +3.00 | -4.30 |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